

브리핑룸과 아기 울음 사이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른 아침 브리핑을 듣기 위해 집을 나설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있다. 아이의 숨소리다.

침대에서 일어나 아기 침대로 향하는 집 안은 어둡다. 주황색 수유등만 희미하게 켜져 있다. 졸린 눈을 비비며 씻고 옷을 입고 출입증을 가방에 넣는 순간, 방안에서 작은 울음소리가 들린다. 응애, 응애. 아침 조간신문 보도를 챙기기 위해 분주한 시간이 순식간에 멀어지기만 한다.

아이는 태어난 지 이제 두 달 반 남짓. 세상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존재는 하루에도 몇십 번씩 울음을 터뜨린다. 배가 고파서 우는지, 졸려서 우는지, 안아달라는 건지 초보 부모는 아직 헷갈린다. 브리핑룸에서는 질문 의도를 누구보다 빠르게 읽어내려 애쓰면서도, 정작 집에 있는 작은 아이의 울음 앞에서는 번번이 헤맨다.

기자가 된 뒤 오랫동안 나는 “빨리 이

해하는 사람”이어야만 했다. 취재원 말의 의도를 파악해야 했고, 문장 사이에 숨은 의미를 읽어내야 했다. 한 발 늦으면 특종을 놓치고, 한 줄 틀리면 거센 항의를 받는다. 특히 사회부 사건 현장에서는 감정을 눌러야만 했다. 울고 있는 사람 앞에서 메모해야 했고, 누군가의 절망을 문장으로 정리하는 데 급급했다.

몇 해 전 이태원에서 일어난 사고 현장에 있었을 때도 그랬다. 사람들의 울음과 탄식이 뒤섞인 골목에서 기자들은 설 새 없이 전화를 받았다. 몇 명이 숨졌는지, 구조는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정부 발표는 언제 나오는지 확인해야 했다. 누구는 현장을 통제했고, 누구는 화면을 찍었고, 누구는 노트북 앞에서 기사를 송고했다. 참혹한 현장 속에서도 기자들은 움직였다.

돌이켜보면 그때의 나는 울음을 오래 바라보지 못했다. 슬픔 앞에서도 머릿속은 늘 기사 문장으로 바꿨다. 어떤 제목

을 달아야 하는지, 리드 문장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어느 표현이 더 정확한지를 고민했다. 감정보다는 마감이 우선이었다.

용산에 이어 삼청동의 기자실로 향하는 길이 익숙해진 뒤에도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의 휴대전화 알림이 울렸다. 갑작스러운 일정 공지가 밤늦게 내려오는 날도 수두룩했다. 기자실의 삶은 늘 분 단위로 뺄곡하게 흘러갔다. 누군가는 워딩 한 줄 놓치지 않으려 이어폰을 꽂고 있었고, 누군가는 손가락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키보드를 두드렸다.

하지만 아이가 태어난 뒤 이상한 순간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브리핑 도중에도 문득 집 생각이 났다. 새벽에 열이 나지는 않았는지, 모유는 잘 먹었는지, 아내는 혼자 괜찮은지 자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게 됐다. 단상 위 발언을 키보드로 치다가도 보채는 아이를 안고 서성이던 아내 얼굴이 떠올랐다. 큰 뉴스가 오가는 공간에 앉아 있으면서도 머릿속 한편에는 늘 아이 생각이 자리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사람들의 얼굴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 브리핑룸에서 별경계 충혈된 눈이 된 이를 보며 “왜 저렇게 힘들어하나”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다. 나와 같



아기 재우는 모습

이 신생아 육아에 찌들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근심 어린 표정과 새치로 덮인 머리에는 저마다의 고민과 아픔의 사연이 있었다.

그러나 기자실 사람들은 늘 단단해 보였다. 하지만 조금만 가까워서 들여다보면 다들 각자의 삶을 간신히 버티고 있었다. 누군가는 더 나은 목표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생활비 걱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추가 근무도 마다하지 않았다. 우리는 늘 세상의 이야기를 기록했지만, 정작 서로의 삶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다.

아이를 안고 새벽 거실을 서성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나 역시 조금씩 달라졌다. 예전에는 취재원의 말 속에서 기사거



아기 재우는 모습

리를 먼저 찾으려 애썼다면, 이제는 그 사람의 표정을 한 번 더 보게 됐다. 브리핑에 나선 관계자의 굳은 얼굴에서 피곤함을 읽게 됐고, 카메라 뒤에 서 있는 영상기자의 노고도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 질문을 던지기 전에 “저 사람도 오늘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날이 많아졌다.

물론 현실은 여전히 팍팍하다. 기자의 하루는 좀처럼 예측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새벽에 아이를 겨우 재워놓고 출근 준비를 하는 순간에 속보 알람이 울리는 경우도 종종 있고, 가족과 저녁을 먹다가도 급히 노트북을 켜야 할 때가 있다. 육아와 취재를 병행하는 삶은 자주 무너진다. 아내와 사소한 말다툼을 하기도 하고, 잠

이 부족해 하루 종일 멍한 날도 있다. 어떤 날은 스스로에게 묻게 된다. 나는 좋은 기자가 되고 있는 걸까. 좋은 아버지가 될 수는 있을까.

그럴 때마다 나는 비슷한 얼굴들을 떠올린다. 브리핑룸에서 버티고 있던 이들, 휴게실에서 누워 잠깐의 단잠에 빠진 이들, 밤늦게까지 마감을 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던 동료들. 어찌면 우리 모두 비슷한 시간을 지나고 있는지도 모른다.

오늘도 누군가는 단상 위 발언을 받아치고, 누군가는 현장을 뛰어다니고, 누군가는 마감을 끝낸 뒤 조용한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현관문을 열자마자 아이 울음소리를 듣게 될지도 모른다.

세상의 일을 기록하는 사람들도 결국은 누군가의 남편이고, 아내고, 부모다. 우리는 때로 지치고 흔들리지만, 다시 노트북을 켜고, 카메라를 든다. 누군가의 오늘을 기록하는 일이 결국 우리 자신의 삶을 버터내는 방식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오늘 새벽에도 나는 잠든 아이의 배 위에 손을 올려봤다. 작은 숨이 천천히 오르내렸다. 하루 종일 수많은 말을 듣고 받아 적었지만, 그날 가장 오래 바라본 것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작은 사람이었다.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